

## 1.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

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 
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.  
필수 성경공부인 '길찾수(길을 찾아 만난 예수)'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.



## 2. 아침묵상

매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됩니다.  
아침묵상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경건생활의 시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.  
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루 30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떼시고 기도와 말씀  
생활을 충실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  
합니다.

### 지난 주 (6/4) 헌금 통계

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%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.  
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.

총 액

\$1,840.00



*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		다함께
*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		다함께
기도 Prayer		김현아
*주님의기도 Lord's Prayer		다함께
*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고후 3:4-18	다함께
말씀선포 Sermon	새언약을 본 사람들	유형선
*찬양 Praise		다함께
*봉헌&축도 Offering&Benediction		유형선

\*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 
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.

### 주일대표기도

6월 18일	6월 25일
류외자	장헬렌

### 예배시간안내

주일예배	오후 2시
아침묵상	(화-금) 매일 오전 6시 (Youtube)

### 공동기도제목

1. 말씀 안에서 -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
2. 나라와 민족 -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
3. 교회와 선교 -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

## 말씀 묵상의 기쁨을 아십니까?

설교의 대가 스펀전 목사님은 말씀을 포도송이로 비유하여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.

“포도송이로 포도주를 만들려면 반드시 포도를 먼저 으깨야 한다. 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압착하여 즙을 짜내야 한다. 그것도 여러명이 힘껏 발로 밟아 주지 않으면 착즙이 되지 않는다. 발로 포도를 잘 뭉개야 귀한 포도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. 마찬가지로 묵상도 포도를 밟는 과정과 같다.”

말씀은 속독하는 책이 아닙니다. 간혹 어떤 분들은 성경을 속독으로 읽어서 30독을 했다고 자랑하는 분들을 봅니다. 그게 왜 자랑 거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속독으로 읽는다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

성경은 단순히 줄거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성경은 묵상하는 책입니다. 묵상은 포도를 발로 뭉개고 또 뭉개서 즙이 나올 때까지 밟는 과정을 의미합니다.

성경을 평생 읽었는데도 나의 영적 성장이 더디다고 느끼신다면 과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필요를 등한시 한채 성경을 의미없이 대충 읽고 넘어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.

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묵상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. 저 또한 매일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. 어느때는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즙이 나오지 않아서 하루 종일 걸리는 날들도 많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씨름 속에서 얻어지는 포도즙을 맛보는 순간, 그 희열과 감격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.

음악을 감상할 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음악이 감동적으로 들립니다. 그 귀가 없이 음악회에 앉아 있으면 졸음밖에 오지 않습니다.

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를 읽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.

어느새 아침묵상을 시작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. 묵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. 100일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? 말씀 묵상의 기쁨을 아십니까?